

# 기름값 인상만이 최선인가

김영우/SBS라디오 방송국 PD

**기**름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지난 달 6일 런던과 뉴욕 시장에서 유가는 34달러를 돌파하였고 우리 나라가 주로 도입하는 두바이산 원유가도 30달러를 넘어섰다.

이렇게 되자 우려하던 오일쇼크가 현실화될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1차, 2차 오일쇼크와 다른 점은 당시엔 급작스런 일이라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 이번엔 나름대로 대비를 해 볼 시간을 가졌다는 것 정도랄까. 그런데 이것 말고도 다른 점은 또 있다.

이번에는 일반 국민들이 정부의 유가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온 것이다. 근대 인권의 상징인 프랑스에서 시작된 고유가에 항의하는 시위는 주변 국가들로 확산되어 영국과 독일, 벨기에에서도 시위가 일어났다.

프랑스에서 일어난 유가인하 요구 시위는 트럭 운전사와 농민들이 주동이 되어 시작되었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끊이어서 일어났다.

영국 '행동하는 농민'의 데이비드 핸들리 회장은 기업이나 정부가 "농민들의 주머니를 쥐어 짜고 있다"며 "프랑스의 시위를 따라 가기로 했으며 당분간 시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에서 유가가 비교적 싼 스페인에서는 어민, 농민, 트럭운전자 등 50여 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전국석유소비자연합이 유가인하 압력을 넣기 위해 특정 정유회사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했다.

이처럼 고유가에 대한 유럽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것은 유럽대부분의 국가에서 유가가 매우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는데다 최근 유로약

세까지 겹쳐 소비자들의 유가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유가는 미국보다 4배 가까이 비싸며 이는 높은 관세 및 석유소비세에서 기인한다.

총 유가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영국이 76%이며 유럽에서도 낮은 편에 속하는 포르투갈이 46%에 이른다. 유럽국가들은 석유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고유가, 고율과세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석유관련 세금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 나면서 정부가 세수 확보에 급급해 유가를 인하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어떠한가? 도로여건이나 대체수단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자가용 사용자들에게 책임을 미룬다. 자동차 소비를 억제하라고 기름을 아껴 쓰자고 말이다.

자동차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지 자동차 한 대에 붙는 세금도 엄청나다.

전문가들이 자동차 관련 세금을 주행세 위주로 바꿔야 한다는데도 정부는 꿈쩍도 않는다.

우리 나라는 아시아 신흥공업국 중에서도 유가 인상에 따른 피해를 심각하게 입는 나라 중의 한 곳이라고 메릴린치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석유도입분을 쌀 때 장기계약을 하고 해외유전 개발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우리 나라도 기름에 붙는 세금이 70%에 가깝다. 무조건 소비자에게만 고통을 떠 넘길게 아니라 어떻게든 기름값 인상을 억제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나라에서도 유럽과 같은 시위가 없으리라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